

“3차 북미정상회담 연내 개최 가능성”

문 대통령·트럼프 정상회담
 문 “북미실무협상 기대”
 트럼프 “회담 지켜보자”
 한미동맹 강화·비핵화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인터콘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한 북한 비핵화 해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조만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열리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은 행동으로 평화를 보여주는 세계사적 장면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상력과 대담한 결단력이 놀랍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해 남북관계는 크게 발전했고 북미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하는 동안 한미동맹은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경제면에서도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계도 매우 좋다”고 말했다. 트

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질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고 싶다”면서 “당장 사람들은 그것(3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길 보고 싶어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미국과 북한은) 매우 성공적이었던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보고 싶다”며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다 해도 괜찮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생각에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북한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 하며 “따라서 나는 어떠한 행동들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군사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이다. 우리는 굉장히 그동안 잘 논의해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회담은 이번이 아홉번째이며,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 회담 이후 석 달 만이

국정원 “2~3주내 북미 실무협상 재개될 듯”

북핵 진전 땀 남북정상회담도

국가정보원은 24일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2~3주안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비핵화 실무협상 의지를 발신하며 대미 협상을 재점화하고 있다”며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북미 실무협상의 수석이고 최선외무성 제1부상이 총괄 지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연계돼서 전개될 것으로 본다”며 “북핵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최고인민회의에서

내부 체제를 정비하고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내로 설정하는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4월), 시진핑 (習近平) 중국 주석 (6월)과의 회담으로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등 북미회담의 영향 최소화에 주력했다고 국정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지속하며 전력 보강과 안보 이슈화를 통해 대남·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며 “김 위원장은 하

절기에 들어 원산에 수시로 체류하며 꾸준히 미사일 발사를 참관해왔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돼지축사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추석 때 성묘를 금지했다”며 “정보를 수집하고 공동방역을 하는 차원에서 투트랙으로 협조가 이뤄지기를 희망하지만 북한의 미온적 대응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조직에 대한 내사 사건이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돼지열병’ 속타는 양돈농가

파주→연천→김포...한강 넘어 전국 확산 움직임
 전남 시·군 7개 축제 우려 속에서도 그대로 강행

전남도 양돈농가들의 속이 타 들어가고 있다. 경기도 파주-연천에 이어 김포와 파주 농장에서 또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오는 등 한강을 넘어서 전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폐사율 100%인데도, 유입 경로를 모르고 백신도 없어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이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조차 “차량역학상 남부지방에 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이런데도 일선 시·군은 농림부와 행안부, 전남도의 지역 축제·행사 자체 요청에도 아랑곳없이 대규모 관람객이 모이는 행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자치단체장 ‘치적’ 알리는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포와 24일 새벽 파주 돼지

농장에서 ASF 확진 판정이 내려진 데 따라 인천·경기·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발령했던 돼지 농장, 도축장, 사료 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 일시이동중 지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보다 철저히 방역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날 연 국무총리도 “부실한 방역보다는 과잉방역이 더 낫다”며 철저한 방역 태세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전남도 등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들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농장을 떠나지 못하며 생식회를 뿌리고 울타리를 사들여 설치하는 등 ‘방역벨트’를 꾸려 차단·소독에 총력을 쏟고 있다.

농림부는 또 모든 축산 관련 행사, 모임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취소나 연기하도록 하는 ‘모임·행사 자체 요청’ 공문을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내려보내는데 이어 행정안전부까지 지역 축제·행사 등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최근 전남도 등을

통해 일선 시·군에 보냈다. 전남도도 정부 권고대로 지역 행사·축제 자체 취소를 권고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은 오래 전 확정, 준비중인 축제라는 점을 들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이달 예정된 명량대첩축제(27~29일), 푸드아트페스티벌(27~29일) 등 7개 축제가 그대로 진행되고 산업통상자원부조차 행안부 요청에도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25~27일)를 순천에서 그대로 치른다. 다음달 예정된 30개 전남지역 축제도 담양 한우축제와 광양숯불구이 축제를 제외하고 모두 계획대로 열릴 예정이다. 한쪽에서는 효과적 인 방역을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토록 하면서도 또다른 한쪽에서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엇박자’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ASF가 한강 이남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다, 예방 소독과 차단 방역 외에는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방역 당국의 ‘엇박자’ 행정까지 맞물리면서 축산농가들만 불안에 떨고 있다.

한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시·군에서는 민·관 인력을 총동원해 거점소독시설, 이동통제초소, 밀집지역 농장초소 등을 운영, 가족이나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 및 소독이 이뤄지도록 최고 수준의 방역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Sulwhasoo

*설화수 몰레그스틴오일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로그스타그램: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

평동산단 주변 개발제한 ‘설왕설래’ ▶2면
 전두환이 만든 ‘바실합’ 지원 논란 ▶7면
 영화 100년 - 신군부와 ‘애로영화’ ▶18면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